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6/15(월)에서 6/25(목)까지 북미주 수녀연합회 연중피정 및 총회에 안 마리루시 수녀가 참석합니다.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은 휴무이며,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6월 26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6월 21일 Father's Day**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6월 14일(주일)- 7월 26일(주일)까지

신청: 재무 데스크(\*광고 게재비는 추후 공지할 예정)

\*광고 신청하신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2026년 '영성의 해' 영성특강 전체 일정**

3/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6/14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Fr. James Gannon OFM (작은형제회 미국관구)
7/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10/11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1/15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2/13 (주일)	산 다미아노 홀 (11:00AM-12:30PM)	Sr. 마리울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오늘의 말씀**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마태 10.26)

한국 방문, 성지순례 등  
장기간 여행 다녀오시는 교우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그림. 성바로말수도회 박향숙 수녀 | 출처. 바로말콘텐츠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I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 초대교회 사람들: 벽동 김치 가게 최조이 모녀

정민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신유박해 당시 정광수의 교회가 있던 벽동(지금의 종로구 송현동, 사간동 일대) 인근은 요즘으로 쳐서 술집과 기생집이 즐비한 고급 유흥가였습니다. 이 거리에 장과 김치를 담가 술집에 대던 최조이네 김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음식 장만에 쓸 시간이 아까워 정광수 집 어린 계집종 금이(今伊)가 이 가게에서 대놓고 장과 김치를 사가곤 했습니다. 연말에 금이가 주인 마님의 뜻이라며 비싼 면화솜 뭉치를 선물로 내밀자, 최조이는 장과 김치를 담례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튿날 계집종이 다시 와서 마님이 한번 보자신다는 전갈을 전해옵니다. 이렇게 전교의 첫단추가 꺾어졌습니다.

최조이는 윤운혜 루시아를 찾아와 무심코 “나무아미타불! 솜도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질색한 윤운혜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지옥 간다며 다급하게 제지했지요. 대신 천국에 가려면 이걸 외우면 된다면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조이와 그녀의 딸 성조이는 천주교 신자로 입교했습니다. 교회는 인근에 든든한 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던 셈이고요. 두 사람은 1801년 3월 26일, 여종의 고발로 체포되어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고문이 두려웠던 어린 여종이 술술 풀어버린 것입니다. 금이는 최조이가 교리 공부를 해서 이사벨(二四發)이란 세례명을 받았고, 딸 성조이도 마르타(馬達)란 세례명으로 정식 입교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주문모 신부에게 직접 세례명을 받는 것은 대단한 신심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최조이는 좀체 십계명을 외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10조목만 외우는 것이 아니어서, 각 조목에 딸린 수십 가지 항목들도 알아야 했기에 공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외워야 했습니다. 답답했던 윤운혜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정신이 맑아져서 외울 수 있을 거라고 훈수를 두었습니다. 딸 성조이는 어머니가 밥상에 오른 고기에 젓가락을 대지 않자 그 이유를 묻고 놀라 다시는 윤운혜의 집에 못 가게 했다고 심문장에서 대답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세례 사실조차 완강하게 부인했지요.

《사학징의》에 실린 딸 성조이의 판결문에는 “최씨 노파의 진술은 지금이 순박하고 진실되고, 그 딸이 능히 그 어머니를 악에 빠지지 못하게 한 것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가상하다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증거물도 없으니 즉각 석방하여 편안히 어머니를 봉양케 하라는 당부도 보입니다. 두 모녀는 이튿날인 3월27일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순박한 체 어리숙하게 행동했던 모녀의 태도에 포도청의 심문관이 깜빡 속았던걸까요? 어쩌면 박해 초기라 사건의 과도한 확대를 막으려는 뜻도 있었을 겹니다. 하루 만에 신앙을 부정하고 풀려난 모녀는 이후 어찌되었을까요? 인근의 천주교 조직이 일거에 와해되고 지도자들이 끌려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김치 가게를 그대로 운영했을까요?

\* 출처: <하늘마음>, 제224호, 2026년 6월 14일(가혜)

\* 출처: <서울주보>, 제2617호, 2026년 6월 14일(가혜)